

‘주민 삶의 질’ 외면한 전남개발공사

남악 오룡지구 체육·문화시설 줄이고 주택용지 늘려 아파트 등 1711가구 늘어 수천억대 수익... 비난 불보듯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2만9239㎡(7만평)에 이르는 체육시설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고급 타운하우스가 대신 들어섰다. 주민 복지 공간인 공공시설용지가 주택건설용지로 변경된 것이다. 돈이 안되는 주민복지 체육시설을 돈이 되는 주택용지로 바꿔 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남도는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지난 20일 관보에 게재했다. 오룡지구는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 사업지구로, 목표와

연계한 50만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곳을 국제 문화예술 교류 거점, 환경과 친화하는 생태적 주거환경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실시계획 변경을 놓고 전남개발공사가 ‘주민 복지를 핑계치고 돈벌이에 나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을 없애고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택건설용지로 바꿨기 때문이다.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공시설용지인 체육시설 22만9239㎡, 근린광장 1661㎡를 없앴다. 또 문화시설 1만9147

㎡,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5661㎡, 노유자 시설 2333㎡를 축소했다.

이렇게 줄인 용지는 단독주택용지 18만 3440㎡, 아파트용지 5만9780㎡ 등 주택건설용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당초 58만 6787㎡였던 주택건설용지는 40%가량 늘어난 81만9305㎡로 확대됐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22만9000여㎡에 달하는 체육시설 용지를 단독주택·타운하우스 용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체육시설 용지를 7개 단지로 나누어 타운하우스 5개 블록과 단독주택 1개 블록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당초 183가구에서 909가구로, 공동주택은 6729가구에서 7716가구로 총 1711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개발공사가 공공용지를 팔아 막대한 수익

을 얻게 됐다는 의미다. 1가구당 2억원에 택지를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변경에 따라 공사는 3422억원을 수익으로 얻게 되는 셈이다. 공기업을 공공복지를 외면한채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전국체전 유치 등을 구상하며 7만평의 부지를 체육 시설로 지정했지만, 1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의 필요성이 약화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경우 무안군이 매입해야 하는데 무안군 현경면에 스포츠클럽하우스가 들어서 무안군 입장에서 이 시설이 필요치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체육시설 집적화 대신 주민 생활공간 곳곳에 축구장·농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탱고 율동에 무더위 훔칠 지난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프린지페스티벌이 열렸다. 무대에 오른 탱고댄스팀이 화려한 율동을 선보이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토하·뱀장어 길러 5년간 2000억 소득 올린다

전남도 ‘내수면어업발전 5개년 계획’... 32개 사업 630억 투입

토하·뱀장어 등 전남 내수면어업에 앞으로 5년간 630억원을 투자해 2000억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총생산량 1만t, 생산금액 2000억원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는 ‘내수면 어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내수면어업법과 해양수산부의 제4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전남 내수면 어업 역량을 강화해 풍요로운 농어촌을 실현한다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남도는 내수면 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생산에서 관광까지 이르는 6차 산업화, 통합 수계관리와 거버넌스 구축 등 총 3개 분야 32개 사업에 63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분야별로 내수면 어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의 경우 지속 생산 증대를 위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ICT 기반 뱀장어 양식시설 구축, 바이오플라크(BFT) 양식시설 구축, 양식장 HACCP 시설 위생관리, 내수면 특화어종 소비 증진을 위한 로컬푸드 산업화 등이 포함됐다.

내수면 6차 산업화는 토하·미꾸라지·동자개·격자·큰장거미새우 등 특산어종의 종자생산 시설을 지원하고, 섬진강 및

영산강 수계 중심의 내수면 관광 및 귀어, 귀촌 대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통합적 수계 관리와 거버넌스 구축은 잉어·붕어 등 우량종자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과 어종별 생태 특성에 맞는 인공 산란장을 설치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멸종위기 어종 복원 및 토산어종 자원 보전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양근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어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감소 및 생태계 변화, FTA 등 자연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적 발전과 어가 경영의 안정화에 힘쓰겠다”며 “또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 신제품 ‘해모돌 1호’ 등록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맛과 식감이 좋은 ‘해모돌 1호’의 품종 등록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해모돌 1호는 2015년 1월 품종 출원 후 2년간 재배실험을 거쳐 최근 품종 등록됐다. 모무늬돌김 계통으로는 최초로, 모무늬돌김은 조간대(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의 해안선 사이의 부분)의 바위나 돌에 이끼처럼 붙어 서식한다. 구이용 김으로 주로 활용된다.

해모돌 1호는 잎이 두껍고 양식이 끝나는 시기까지 활력이 유지된다. 맛과 식감이 좋아 자반, 스낵, 수프 등 가공식품에도 적합하다고 해양수산과학원은 평가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2010년 ‘슈퍼 김’으로 불리는 ‘해풍 1호’를 개발해 중저 분양 후 전남 김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19일 열린 사회적경제 간담회에 참석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오른쪽)이 김경수 국회의원(가운데)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정부·靑 접촉 광폭행보 눈길 간담회 잇단 참석 자치분권·사회적경제 활성화 의견 제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9일 제2국무회의 실시, 4대 자치권 보장 등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정부 및 청와대와 접촉 의견을 늘리고 있다. 민 구청장이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의 간담회 등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자치분권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민 구청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사회적경제 간담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친화적,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과 친화적 사회적경제비서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청와대와 정부가 수립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민 구청장은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집권과 친화할 수 없는 사회

적경제 특성상 지역과 시민사회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 핵심인 금융문제 해결 접근은 신흥과 세미금융을 활용하자”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분권’에 힘을 보태는 행보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민 구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김 부겸 행정부총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또 22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간담회에, 2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토론회’에 참석한다.

민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촛불시민의 열망이 현실로 구현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며 “지역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 이를 전국으로 전파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하루빨리 열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여수 화양면·묘도에 관광테마단지 들어선다 전남도·市, 여수오션컨트파크 등 2곳 1240억 투자협약

여수시 화양면과 묘도에 1240억원을 들여 관광테마단지가 조성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청에서 (여수오션컨트파크, 팬텀) 등 2개 기업과 1240억원 규모의 관광테마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주민 250여명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여수오션컨트파크)는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일원 14만8140㎡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관광테마단지를 조성한다.

관광테마단지에는 관광호텔, 보로로 테마파크, 보로로 전망대, 매직파크, 회전 관람차, 스카&웰니스센터, 단독형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여가·휴가·주거 공간을 함께 아우르는 로하스 주거공간으로 여수 가락만의 수려한 해안 환경을 활용한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국제 수준의 최고급 친환경적 건축형 리조트 개발 예정이다.

단지가 완공되면 일자리 2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오션컨트파크)는 서울에서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이성태 대표가 고향인 여수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 2월 설립한 관광개발 기업이다.

서울에 본사를 둔 통신장비 제조기업 팬텀(주)은 봉화산에 모노레일과 전망대를 건설한다. 팬텀은 440억원을 투자해 여수시 묘도동 이순신대교 홍보관 주차장에서 해발 246m의 봉화산 정상까지 장북 1.12km 구간에 모노레일 및 원형 전망대 등을 세운다. 모노레일은 복선으로 50인승 5대가 운영된다. 35m 높이의 전망대에는 콘텐츠 가상현실(VR) 체험관, 3D영상관, 전쟁기념관, 스카이워크(바닥 강화유리) 등을 설치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2018년말 시설이 완공되면 5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만원
일일 4만7천원부터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땀방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보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